

제3회 출판기념회 출판보고

보고일자: 2026년 3월 37일

안녕하십니까, 한국하이쿠연맹 편집위원장 김수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하이쿠작품집 《섬노루귀》의 발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노루귀》 창간호 (2023년 12월 31일 발간)

- **작품집명:** 《섬노루귀》 (꽃말: 신쇠, 울릉도 야생화로 우리나라 고유종)
- **발간 배경:** 창립 초기부터 한국하이쿠라는 문학 형식이 한국적인 정서와 자연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와 도전 속에서 발간되었습니다.
- **참여 대상:** 한국하이쿠연맹 정회원, 고등부, 대학부
- **작품 수록:** 총 202편
- **구성:** 봄구, 여름구, 가을구, 겨울구, 무계
- **출판 기념회 일시 및 장소:** 2024년 1월 19일 양정청소년수련관 5층 시나브로
- **참석자:** 약 30명
- **특징 및 의의:** 창간호는 한국하이쿠의 초석을 다지며 문학적 정체성을 탐구한 결과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아름답게 표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무계 부문을 함께 구성하여 계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자유로운 창작에도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섬노루귀》 제2집 (2025년 1월 24일 발간)

- **발간 배경:** 창간호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창작과 젊은 세대의 참여를 통해 한국하이쿠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참여 대상:** 한국하이쿠연맹 정회원 및 운영위원, 대학부
- **작품 수록:** 총 270여 편
- **정회원 및 운영위원 작품:** 210편
- **대학부 작품:** 응모한 280편 중 60여 편 선정
- **출판 기념회 일시 및 장소:** 2025년 1월 24일, 양정청소년수련관 5층 싱글벙글
- **참석자:** 약 35명
- **특징 및 의의:** 제2집은 창작의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하며, 신진 작가의 배출과 젊은 세대의 참여를 통해 한국하이쿠의 미래를 밝게 그려내었습니다. 또한 계절 구성을 기반으로 자연과 정서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번역을 통한 국제 교류는 물론 자유시와 현대시조와의 콜라보레이션, 즉 어울림을 통한 문학 간 교류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하이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섬노루귀》 제3집 (2026년 3월 27일 발간)

- **발간 배경:** 창간호와 제2집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하이쿠의 창작 기반을 더욱 넓히고 일반부와 대학부를 아우르는 보다 본격적인 선집으로 발전시키고자 발간했습니다.
- **참여 대상:** 한국하이쿠연맹 일반부, 대학부
- **작품 수록:** 총 280편
- **일반부 작품:** 181편
- **대학부 작품:** 부산대 258작품, 부산외대 366작품의 출품작 가운데 97편 선정
- **여는 구 및 닫는 구:** 2편
- **출판 기념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27일, 양정청소년수련관 5층 싱글빙글
- **특징 및 의의:** 제3집은 일반부와 대학부가 함께 어우러진 구성을 통해 한국하이쿠의 창작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계절 감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통학로, 정류장, 교실, 전철, 붕어빵, 꿀, 김장 등 청년 세대의 일상적 풍경과 정서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어 한국하이쿠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창작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한국하이쿠가 자연과 인간의 정서를 오늘의 언어와 생활감각으로 새롭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섬노루귀》 창간호부터 제3집까지의 출판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섬노루귀》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하이쿠의 문학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창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하이쿠연맹은 한국적 정서와 자연, 그리고 오늘의 삶을 담아내는 한국하이쿠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